

읽을거리	황현산『밤이 선생이다』	
파트너	조민영님	
발제자	이승준님	
시간표	[1] 19:40 오프닝& 독후감토크	[2] 20:10 북토크
	[3] 21:20 쉬는 시간	[4] 21:35 북토크
	[5] 23:00 마무리발언	[6] 23:20 모임끝!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리서치하는데요> 시즌6 마지막 모임에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번 시즌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후감을읽는 기쁨과 지적대화가 금요일밤에 번잡한 강남역까지 오게 하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리서치하는데요>는 오늘까지24개월 동안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시즌이 거듭되면서잔잔하고도단단한 모임의 성격은 또렷해지고있습니다 리서치 방법론이 아닌일 하는 마음, 사용자 경험의본질을 바라보는대화는 앞으로도계속 이어질 거예요 오늘 밤 이후에도우리가 잔잔하고단단하게연결되면좋겠습니다

북토크

INTRO

트위터(X)를 통해 저자(@septuor)를 팔로우하고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28만 명이 팔로우하는고(故) 황현산 비평가 그의 책은 2013년 처음 발행된 이후 2022년 38쇄를 찍을 만큼 비평가의책으로는유례가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발제문을준비하면서그를 추모하는마음 중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은말의 시간과 시간의말을 누구보다예민하게감지하였기에서와 시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실 수 있었다. 선생님은다감한 스승이었고 엄정한번역가였으며 따뜻한 비평가였다." - 신철규 (시인)

평론가이자작가라는수식어보다밤의 철학자가더 잘 어울리는황현산 님은 사유와 유머로 SNS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문장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우리는 사소한 것 보이지않는 것 속에서정말 소중한것을 발견해야한다."

- "말이 많다고 생각이 많은 것은 아니다. 생각은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긴다"

- "경쟁과 효율만을강조하는 세상에서는밤의 고요와 느린 사유가더 소중하다"

- "나는 내가 모르는것이 참 많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되었다 그것이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태도라고생각한다"

북토크

그는 "낮에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밤이 돼서야 진짜로 일하는 것 같다"고 표현할 만큼 스스로 올빼미 체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밤의 고요와 어둠 속에서 몽상하는 시간을 즐겼던 그는 밤에 내면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며 창조적 자아가 깨어나는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밤의 체험은 '사소한 것, 작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시선과 닿아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우리가 설계하거나 이용해 온 경험 속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소중한 것'을 함께 발견하고 바라볼까요?

Book Talk 1 - 몰입할 수 있는 경험

<밤이 선생이다>는 흔히 일상에서 잠, 어둠, 무의식으로 무시되는 밤의 시간을 사유의 공간으로 재발견하며 생각의 자유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스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요와 어둠 속에 외부 자극이 줄어들어 내면에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 낮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았던 경험을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현대인이 항상 켜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반문해볼까요? 디지털 시대에 낮과 밤은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 스크롤이 만드는 디지털 중독과 과도한 정보 노출 속에 내면을 바라볼 만한 여유는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밤의 고요는 우리의 일상에 정말 필요할까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ook Talk 2 - 온전한 사용자의 모습

낮과 밤의 형식적인 구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사용자는 '낮의 모습'이 아닌지, 사용자를 이해하려면 '밤의 모습'까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업무시간에 바라보는 사용자의 욕구나 불만, 정체성이 피상적인 데이터 수집에 그치는 건 아닐까요? 사용자의 내면, 깊은 감정 등 비언어적 신호까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자는 세태를 꼬집으며 효율과 생산성, 경쟁 중심의 사회가 놓치고 있는 '깊이'와 '질'을 강조합니다. 빠르고 편한 것도 좋지만 사용자에게 의미 있고 몰입되는 경험을 제공할 때 비로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시나요? '천천히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최근 몰입했던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Book Talk 3 -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

책을 읽으면 페이지를 접거나 단락에 줄을 치기도 하고 중간에 잠시 멈췄다 다시 읽기도 합니다. 솜뿔으로 대표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짧고 파편화된 정보' 대신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즉각적 만족감을 주는 '빠른 소비'로 인해 후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은 사용자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기만적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를 유혹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된 설계'라고 봐야할까요?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사결정이 현실에서의 삶에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끼쳤던 경험을 이야기해볼까요?

북토크

Book Talk 4 - 사유와 회복

작가는 밤을 '낮에 잃은 것을 다시 찾고, 내면의 진짜 자아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디지털 중독과 정보의 과잉 속에 끊임없는 자극을 받는 현대인(이자 사용자)은 고요와 회복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자에게 휴식과 '고요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수익을 증명해야 하는 과업 속에서 '내면과의 만남'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Outro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어? 날카로울 필요가 있어?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하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가 아이폰에 탑재된 '스크린 타임'과 '방해금지 모드'가 있고 일을 할 때 뽀도도로 타이머를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독의 시대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모순일까요?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는 역치를 높이고 높아진 역치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느린 사유와 진짜 휴식을 위해 우리는 지루함을 견뎌내고 효율을 내려두고 지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한숨 자고 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들 말하지요. 밤이 좋은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의 프랑스 속담이 있는데 '밤이 선생'이라고 웃자고 말했다가 책 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몇 번의 밤에 함께 나눈 대화들로 마음 속에 있는 고민들이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번 <리서치 하는데요> 시즌6를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북토크

마무리 토크

- 오늘 모임은 어떠셨나요? 모임에서 나눈 대화 중 머리가 뒹했던 순간을 이야기해 볼까요?
- <리서치 하는데요> 시즌6 네 번의 모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 함께 읽은 4권의 책 중에 모임 전 예상했던 것과 모임 후의 발견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알림톡을 못 받았다면?
위 QR을 스캔해
접속해주세요!